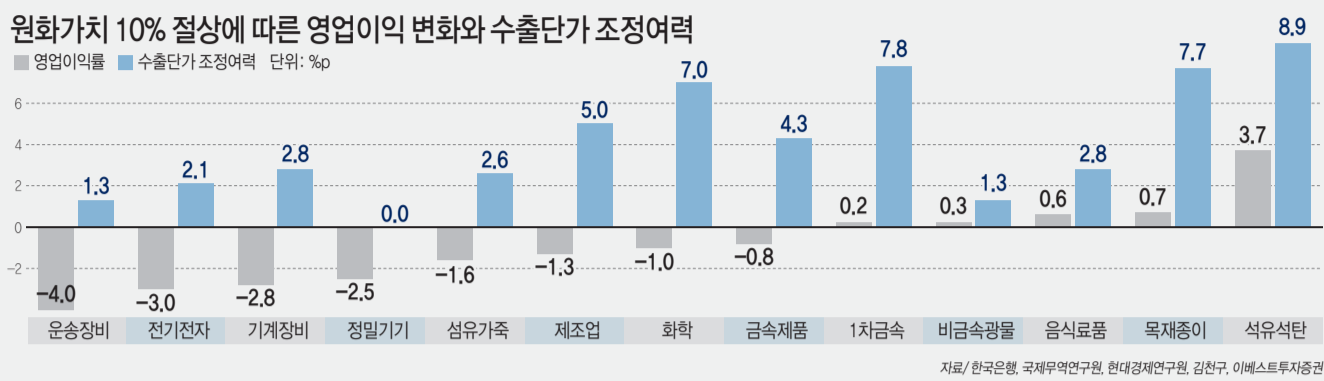


韓경제 장밋빛 전망 불구... 기업들은 환율에 '일희일비'

달러의 힘, 新통화전쟁

② 달러만 바라보는 韓경제

원화값 상승으로 낙수효과 기대 경영 영향 '환율 변동'이 가장 커
 H선 엔화 하락에도 수출 하락세



경기도에 등지를 뜬 자동차 부품 업체 B사는 요즘 환율만 바라본다. 이 회사의 영업담당 부사장은 “떨어지는 원화값을 보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문제는 날 뛰는 환율이 하루에도 최대 두자릿수까지 날 뛰다 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수입가공업체 D사는 어떨까. 이 업체의 재무담당 한 임원은 “환율이 1원 움직일 때마다 순이익이 많게는 수 억원 왔다 갔다 한다”며 “하지만 원화값이 올라(환율하락)도 반갑지 않다.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해 반제품을 만들어내도 받아줄 수출업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원화값 상승, 낙수효과 신통치 않아
 과거 원화값 하락(환율상승) 국면에서 한국경제는 성장했다. 예상밖 결과다. KB증권이 실질 GDP 성장률과 원·달러 환율을 분석한 결과 과거 원·달러 환율이 0~10% 이내 전년비 하락률을 기록했던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3.2~3.5%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0%이다. 2018년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7% 하락한다면 2018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3%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아직은 장밋빛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성장률을 2.8%로 올렸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도 같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각각 2.8%, 2.9% 성장을 전망했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지금처럼 좋을 때 얘기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로 바뀌려면 수출이 잘 돼야 한다. 당장은 좋다. 관세

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한 30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 덕이다.

문제는 환율이 아래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은 수출기업에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연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인 기업 5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슈로 ‘환율 변동 심화’(48.4%)를 첫순위로 꼽았다.

‘글로벌 경쟁 심화’(25.1%), ‘미국·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16.0%)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들은 보통 환율이 10% 하락하면 운송장비업의 영업이익률은 4%포인트, 전기전자산업은 3%포인트, 기계장비는 2.8%포인트 감소한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이 대부분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 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자동차업계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 김건우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장기적인 환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동시에 기업들은 자체 환율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응답 기업의 67.9%는 이미 환차손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방 리스크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환경 악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금융여건 악화, 고용개선세 미흡에 따른 내수 회복세 약화를 들었다.

그런월드 S&P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리 인상 흐름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이 이어지고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조치가 내년 가시화할 것”이라며 “다만, 이는 글로벌 경기와 무역 개선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환율우려, 기우일까?
 환율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의 ‘엔’가 주력 품목의 수출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산업연구원(KIET)의 ‘해외생산 확대

가 수출에 미치는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은 201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14년 일본 수출은 6900억 달러로 3년 만에 15.8% 줄어 들었다.

보고서는 “엔화·달러 환율 가치 하락에도 수출 회복이 더딘 현상은 해외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기업 상당수도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KIET 측은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정책 선택과 동향을 반영교사로 삼아 미래 정책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환율의 상관관계도 떨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환율이 제조업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1992년 대비 27% 감소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연구원은 “지난 30년간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되어 왔고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도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요인보다 글로벌 경기상황이 더 중요해진 데다 수출의 내수 및 고용에 대한 낙수효과가 미흡해진 구조적 변화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의 환율하락을 우리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인 발전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써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 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발 통화전쟁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과 위안화 및 중국의 경제불안, 미·중 갈등이 겹칠 때 충격은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총수일가 사익편취 의혹 ‘공익법인’ 실태조사 본궤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 동일인 해당여부·상증세법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그간 공익법인은 사회 공헌이라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에 동원된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2단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그 대상은 5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이다.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사회공헌사업을 목적과 다르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된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개를 대상으로 2단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목적은 상속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

대, 부당지원,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세부 조사 내용은 ▲출연받은 재산내역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공익법인 보유 주식 지분의 의결권 행사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비중 등이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개별거래정보 등

을 담지 않도록 했다. 혐의 포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각 법인에 45일간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한 공정위는 3월 중순까지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상반기 안에 세부 조사 내용과 그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자에게 45일간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했으며 3월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메가 브랜드 육성... 브랜드 가치 높여야”

이러 “글로벌 사업 확대는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대표이사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글로벌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그룹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여성, 아동, 글로벌 등의 주제로 브랜드 빌드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각 사별로도 메가 브랜드를 육성해 롯데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강조했다. 그는 “기술 환경과 고객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적”이라며 “AI, 로봇, IoT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롯데의 전 비즈니스에 적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서비스를 디지털화 하는 것으로는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고, “비즈니스 전 과정에 적용되어 생산성 향상, 물류와 배송 시스템 개선, 서비스 혁신 등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회장은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만큼 올해는 특히 위기 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리스크에 대비하는 기업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인용 기자

JY 경영 공백에 ‘투자 감소’ 등 불안요소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공백 길어지면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크라이슬러 그룹의 지주사 엑소르 사외이사와 중국 보아오포럼 상임이사 자리를 내렸고, 미국 IT 기업들과 교분을 맺던 선벨리 컨퍼런스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하만 이후 대형 M&A도 부재다.

투자 규모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시설투자 43조 4000억 원을 집행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 투자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년 대비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 액면가를 기존 50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한다고 공시했다. 액면분할이 실시되면 주가는 5만원 선으로 낮아진다. 보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도 늘렸다. 지난해 잉여현금흐름의 50%인 5조8000억원 전액을 배당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연간 배당금액인 4조원 대비 약 46% 증가한 수치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2016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발표한 2017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계획대로 완료했다.

지난 1년간 총 4회차에 걸쳐 보통주 330만2000주, 우선주 82만6000주를 매입해 소각 완료했다. 총 9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1주당 주가는 250만원을 상회해 일반 주주들이 접근하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웠다”며 “액면 분할 수 현재 주가 기준 5만 원대로 낮아지는 1주당 주가는 투자 저변 확대와 유동성 증대 효과 등으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